

정부 · 기관소식

농림수산식품부

한 · 중 FTA 협상 개시 선언에 대한 농식품부 입장

5월 2일 한 · 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 · 중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됨으로써 조만간 1차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 7년간 민간 · 산관학 공동연구 및 정부 간 사전 실무협의를 등을 통해 한 · 중 FTA 추진을 면밀히 검토해왔고, 지난 2012년 1월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1.9)를 계기로 공청회(2.24),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4.16) 등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 북경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민감분야 보호원칙, 단계별 협상구조 등 지난 1년 7개월에 걸쳐 진행된 실무협의를 주요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문 발표를 통해 한 · 중 FTA협상이 개시됨을 알렸다.

농어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FTA는 지리적 인접성, 농업 생산구조의 유사성, 가격 경쟁력 격차 등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농어업계에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수산업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우려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본격적인 협상 전에 농수산 분야 등 민감한 분야 보호방식에 대해 우선 합의를 도출하는 단계적 협상구조를 채택하였다.

단계별 협상구조는 1단계 협상에서 상품 · 서비스 · 투자 등 분야별로 협상의 틀(모델리티)을 도출하고 장기철폐, 양허제외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보호방식을 우선적으로 서면합의하도록 한다.

2단계 협상에서는 1단계 협상에서 서면합의된 협상의 틀을 바탕으로 일괄타결 방식의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 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종합적 · 체계적으로 협상과 국내대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협상이 개시되면 단계별 협상을 통해 양허제외, 예외적 취급 등 농어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상 현안에 대한 품목군별 · 분야별 협상전략 마련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의 한중 FTA T/F를 『한 · 중 FTA 대책단*』으로 전환 · 운영할 계획이다.

* 1차관을 단장으로 3개반(협상반, 국내대책반, 홍보반)으로 구성(12.5 ~)

중장기적으로는 시설 현대화, 경영체 육성 등 농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대책도 병행하는 동시에, 수출 전략품목을 적극 육성하여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도 도모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 · 중 FTA 협상개시에 앞서 농어업계와의 소통 강화와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2011.12월부터 주요 품목별로 생산자대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품목별 전문가 회

| 정부 및 기관소식 |

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고, 그 외에도 토론회, 설명회, 포럼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농식품부 의견수렴 실적 : 총 51회 진행 (12.1 ~ 4월 현재)

- 품목별 전문가 회의, 장차관 현장 활동, 농어민단체간담회, 전문가 포럼, 설명회, 토론회, 전문지간담회 등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생산·소비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다양한 형태로 수렴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협상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 ‘외식산업계와 함께 나선다!’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남상만)와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음식점 운영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전국 음식점 42만 여개 업소(약 75%)를 회원으로 관리하는 등 음식점 영업자를 대표하여 국민의 보건영양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하였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국 지회 조직을 활용 음

식점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업소 맞춤형 현장 지도로 원산지 표시방법 및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수산물 부정유통 신고 등 민간 감시 기능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는 홍보·교육자료 우선지원, 수산물 명예감시원 단계적 위촉(약 1,000명), 업무추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우수업소 추천 권한 부여 등 업계의 자발적인 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는 “이번 MOU는 수산물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함으로써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효과적인 조기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는 4. 11 ~ 7. 10 3개월간 전국 7대 광역시 및 주요 시·군의 수산물 전문음식점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유도하고 향후 유통소비량이 큰 대형 음식점 위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제도 정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농진청 개청 50주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등 축하 메시지**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며, 대한민국의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든든한 주역이 돼주시시오.”



이명박 대통령은 농촌진흥청 개청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과거 50년을 발판으로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농진청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 생산자 단체장 등 각 계 인사가 함께 해 국내 농업 중심에 자리 잡은 농진청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은 이제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21세기 유망산업이다.”며, “이제는 우리 농업이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세계 농식품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분발하자.”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박현출 청장은 “다가오는 미래에도 농업은 첨단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일자리와 국가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미래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한층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며, “농업·농촌, 국민이 행복한 미래를 구현하는 초일류 농업연구기관으로 우뚝 서도록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입농산물 검사강화로 불량농산물 도입근절
건고추를 비롯한 수입농산물 전반에 대한 검사제도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 이하 “품관원”)은 최근 국영무역에 의해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언론보도를 계기로 수입농산물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11년도 말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에 흠·먼지, 곰팡이 등이 과다 혼입되어 있어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먼저 불량농산물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대행 기관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와 협의하여 수입농산물의 구매규격을 대폭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수분함량은 부패·변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국내 유통 중 품질의 변화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품위 규격 중 일정 수준 이하의 규격미달품은 반송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수입 건고추에 대하여는 유통공사와 협의하여 종전 수분규격 20.0%를 18.0%이하로 강화하고, 절편 압축진공포장 규격을 새로이 설정하여 불량 수입산 고추가 국내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입농산물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본 검사량을 확대하고 검역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표본추출 컨테이너는 검역기관과 사전협의 선정하여 합동검사를 실시하고, 컨테이너별 표본검사 시료를 기존 3포대에서 5포대로 확대 추출하되, 시료채취 방법도 컨테이너 전·후 중간부위와 품

| 정부 및 기관소식 |

위가 고르지 않을 경우 더미 내부에서까지 골고루 채취함으로써 검사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또한, 흙·먼지, 곰팡이 부패 등 검사과정에서 검역 및 안전성 분야 의심사항이 발견될 경우는 농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 및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즉시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하였다.

수입농산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검사인력 보강 및 검사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검사의 정밀도 향상을 위하여 검사 장비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착향검사지 사무소에는 검사경험이 풍부한 우수인력을 1인이상 전진배치하고, 품관원 지원별 인력풀(POOL)제를 운영하여 검사물량 집중 시 소요인력을 추가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조명확대경 등 휴대가 간편하고 기동성이 뛰어난 검사장비와 상명천칭, 색채계 등 정밀 검사장비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수입농산물 검사량 증가추이:('05)467천톤→

('09)565→('10)617→('11)886 ('05대비190%)

불량농산물의 수입 차단을 위해 필요시는 해외 선적지 검정지도·자문을 실시하고, 민간검정업체의 검정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MMA 수입쌀에 대해서만 해외 선적지 검정지도·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영무역으로 수입되는 견고추 등 주요 품목의 선적지(중국, 인도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검정원에 대한 지도·자문을 실시함으로써 불량농산물의 수입을 사전 차단하고,

유통공사 및 8개 민간검정업체 검정원·관계자 20여명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수입농산물의 검정능력 향상 도모와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 '12.3.8.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 및 민간검정

업체 검정원 22명에 대한 선적지 품위검정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

앞으로 수입농산물 검사에 대한 규정준수 여부 등 자체 점검도 대폭 강화하여 검사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품관원 나승렬 원장은 “구매규격 보완 및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 검사인력 및 장비의 보강 등 수입농산물검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불량 농산물의 도입을 근절 시키고 원산지 단속도 철저히 하여 수입농산물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이주호본부장 취임식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장에 이주호 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이 임명됐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5월 7일 경기도 안양 소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회의실에서 본부장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신임 이주호 본부장은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농수산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후 35년간 농림부 가축위생과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같은 경력을 통해 이 본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위생관리, 수출입 동물·축산물의 검역검사 등 가축위생 및 방역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주호 본부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산림청·aT·검역검사본부, 수출업체와 시험 수출 성과 공유

산림청(청장 이돈구)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5월 7일 대전 산림청 청사에서 'FTA 활용 수출확대를 위한 분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림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를 비롯해 분재 수출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aT와 한국분재유통(주)이 추진한 대미 분재시험수출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국가별 검역동향과 수출확대를 위해 필요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했다.

대미 분재수출은 2007년 이후 5년만에 수출이 재개된 것으로, 산림청과 aT 지원의 '마켓테스트 사업'을 통해 이뤄진 성과로 소나무, 철쭉, 진백 등 17만달러 상당의 분재가 수출됐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즉시철폐와 맞물려 시기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새로운 시장발굴이 필요했던 국내 분재업체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예류 6천억불 및 15억불 정도로 추산되는 미국 분재시장은 최근 분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면서 분재클럽, 협회, 박물관 등이 생기고 있는 추세로, 현재 일본산은 바이러스 때문에 다양한 수종이 수입이 어려우며, 중국산은 유사제품의 대량생산으로 인하여 선호도가 낮아, 다양한 수종의 공급이 가능한 한국산 분재의 가치가 높다고 한다.

aT 관계자는 "분재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수혜품목 중의 하나"라며 "분재의 대미 수출확대를 위해

마켓테스트 뿐만 아니라, 분재농가 대상 수출컨설팅 진행 등 분재 수출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은 위생·안전에서부터”

농협, 축산물판매장 특별 위생점검으로 안전축산물 공급에 힘써

농협중앙회(축산경제대표이사 남성우)는 최근 미국의 광우병 재발생 등으로 인한 축산물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안전 강화와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위해 4월 11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점검은 기온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행락철을 맞아 축산식품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국 1,000여개의 농축협 계통 축산물 판매장이 동시에 자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각 16개 시도지역본부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계통 축산물판매장 중 임의 선정된 150개소에 대해 불시점검을 병행하여 사업장의 위생관리 실태, 원산지, 유통기한, 보관상태, 표시기준 및 쇠고기이력제 관리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농협은 이번 점검을 통해 “모든 판매장이 매일 자체 위생점검을 생활화하고 미비한 사항은 즉시 보완함으로써 최상의 환경에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